

아마겟돈

그 다음 세계 평화



아마겟돈 이후 세계 평화

아마겟돈은 문제가 지구에 불길한 예감을 퍼뜨리면서 일상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국가와 이념 간의 갈등이 있을 때, 특히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있을 때 사용됩니다. 뉴스 미디어에서 이 단어를 자주 사용했지만, 필자가 이 단어의 기원과 배경을 실제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겟돈이 신이 관여하는 거대한 투쟁이나 강력한 전투, 즉 선과 악 사이의 전투, 모든 전투를 끝내기 위한 전투에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겟돈은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큰 날의 전투"와 관련하여 사용된 성경 용어입니다. (요한계시록 16:14) 요한계시록은 진리와 오류, 의와 불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사이의 오랜 투쟁을 상징으로 묘사한 책입니다. 이 묘사에서는 한편으로는 '짐승', '용', '거짓 선지자', '바벨론', '음녀', '더러운 영', '개구리' 등의 상징이 사용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양', '신부', '거룩한 성' 등의 상징이 등장합니다. 아마겟돈은 이 책에 사용된 또 다른 상징 중 하나이며, 현 시대를 끝내는 투쟁의 위대하고 마지막 단계, 즉 그리스도의 왕국이 승리하여 보편적이고 영원한 평화를 확립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지리적, 역사적으로 므깃도

언덕과 관련이 있습니다. 므깃도는 고대 성지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언덕 국가로 들어가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므깃도의 일반적인 지역은 이스라엘의 큰 전쟁터였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3백 명의 병사가 이곳에서 미디안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사울 왕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상징은 그 성격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징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왕국이나 정부를 표현하기 위해 짐승을 사용하며,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정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 전장을 사용하는 것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한 군대가 '워털루'를 만났다고 말할 때, 이는 한동안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국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패배를 맞이했다는 의미입니다.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했기 때문에 이 특정 전장에 그런 의미가 부여된 것입니다.

아마겟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전장이었으며, 예언에서 그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려면 고대 이스라엘이 참여한 모든 전투와 관련된 특별한 특징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항상 승리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의 백성이 패배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전투에는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벌어진 전투와는 달리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위대한 계획에 따라 그들의 승리와 패배를 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고려할 때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워털루와 마찬가지로 매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분명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이 문제를 지휘하실 투쟁, 즉 정의의 세력에 대한 최종적이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보장하는 투쟁을 암시합니다. 또한 예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전쟁은 시대의 마지막 큰 전투이며, 사탄의 모든 기관이 영구적으로 패배하여 그리스도 왕국 건설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큰 날의 전투"로 묘사되는 이유입니다. - 요한계시록 16:14

"그 큰 날"

예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이 현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기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현재의 악한 세상"(갈라디아서 1:4), 즉 사회 질서가 종말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복수의 날", "마지막 날"로 묘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세상의 일에 개입하여 죄와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의 광란과 추락을 멈추고 오랫동안 약속하신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는 때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주의 날"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노략질하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나의 결심은 열방을 모으고 왕국을 모아 나의 진노, 곧 나의 모든 맹렬한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려 함이니 이는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로 삼켜지리라"는 예언이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 스바냐 3:8

열방에 대한 이 '복수의 날'은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더 자세히 묘사됩니다. "주께서 용사처럼

나가시며 전쟁하는 사람처럼 질투를 일으키시며 부르짖으시며 포효하시며 대적들을 이기시리라. 내가 오랫동안 잠잠하여 가만히 있어 스스로 삼갔으나 이제 내가 해산하는 여인 같이 부르짖으며 단번에 멀하고 삼키리라." - 이사야 42:13,14

악의 통치

인류의 첫 부모가 하나님의 법을 범한 이래로 악은 인류의 문제를 지배하는 요소였습니다. 사탄은 인간 세상의 통치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이 세상의 왕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31, 14:30)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민을 다스리실 때 다른 나라들도 때때로 신성한 권위와 권능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이방 왕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신

기적적인 방식으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의 현현을 목격 한 지 수세기가 지났고 그 결과 세계의 모든 의회에서 그분과 그분의 인간사에 대한 통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세상 일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평화를 '보류'하셨다고 말씀하시며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십니다. (이사야 42:14) 반면에 그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더 이상 평화를 지키지 않으시는 날까지,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으실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라고 권유받았으며,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나의 질투의 불"로 온 땅, 즉 현재의 악한 세상을 멸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악과 악한 제도를 파괴하는 이 일에서 주님은 자신을 강한 사람으로 나아가 전쟁하는 사람처럼 질투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투를 촉발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위대한 대적 사탄이 불순종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지만, 그분은 인간 피조물의 궁극적인 복지에 대한 관심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죄와 죽음의 통치를 간섭하지 않으셨던 수천 년 동안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구속과 회복의 계획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며, 모든 민족의 눈이 열려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루시퍼는 창세기에서 뱀으로,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는 "그 옛 뱀"으로

의인화되어 세상에 죄를 들여온 존재입니다. 그는 어머니 이브를 속이고 그녀를 통해 아담이 신의 율법을 범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죄에 대한 형벌인 죽음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인류는 거기서부터 죽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심은 거의 모든 인간의 노력의 동기가 되었고, 이기심에서 비롯된 적대감, 증오, 범죄, 전쟁이 생겨났습니다. 6천 년 동안 죽어가는 세상은 더 나은 시대가 오기를 바라며 고군분투했지만, 이기심 때문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신의 손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인간 창조물을 사랑하시며, 그분의 말씀에는 결국 사탄의 통치를 완전히 전복하고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사탄의 죄와 죽음 통치의 모든

증오스러운 요소들을 멸망시킬 신성한 성취의 개요가 우리를 위해 추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 시대에 걸쳐 인간의 일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우리의 위로와 교훈을 위해 그분의 말씀에 기록된 찬란한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크게 드러납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고대 사상가들의 희망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인류를 향한 신성한 목적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패턴과 인류를 죄와 질병과 죽음의 속박에서 궁극적으로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준비해 오신 놀라운 준비를 볼 때, 우리는 신성한 계획의 유산이 없었으며 주님께서 그분의 웅대하고 사랑스러운 계획을 성취하는데 실패한 사례는 없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첫 광선

창조주께서는 "옛 뱀"인 마귀에게 하신 말씀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간 창조물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첫 번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여자의 "씨"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15) 하나님께서 나중에 선지자들을 통해 인간 종족에 대한 의도를 더 자세히 나타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뱀에게 하신 이 모호한 말씀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에 비추어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 땅에서 사탄의 통치가 전복되고 그리스도 왕국이 승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임이 분명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간략한 상징적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마귀와 사탄인 옛 뱀을 붙잡아 천 년 동안 결박한다고 합니다. 이 강력한 천사는 다름 아닌 약속의 씨인 그리스도이며, 이 기록은 그의 왕국의 설립과 그의 천년 통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천 년 동안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회복된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덴의 비극이 있는 지 수 세기가 지난 후, 하나님은 충실한 종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심으로 죽어가는 민족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이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땅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서는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태어날 씨, 즉 자손을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로 이 약속을 확인하셨고, 이 약속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희망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예언자들에게 의해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었습니다. 약속된 씨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정사를 그 어깨에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썼습니다.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그의 다스림과 평화가 끝이 없으리니 그가 그것을 정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세우시리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르리로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 이사야 9:6,7

다가오는 정의의 정부에 대한 이 약속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가 신성한 기적의 능력에 의해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언급된 아들은 그리스도이며, 선지자는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신성한 그리스도가 땅에서 악을 멸하고 의를 높이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성취하는 책임을 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든든한 말입니까! 이는 수십억 개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으며,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사탄의 강력한 죄악의 요새를 형성하는 죄와 사망의 세력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의 공격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구세주 탄생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신성한 사랑의 선물로,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모든 광범위한 약속이 때가 되면 성취될 것이라는 보증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두려워 말라 ...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말한 천사의 예언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 누가복음 2:10,11

예수님은 서른 살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 사역은 자신이 전 세계에 평화와 생명의 정부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늘에서 온 사자로 왔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축복을 설명하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을 예언한 약속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한 능력을 사용하여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자신이 참으로 약속의 씨라는 사실과 그러한 놀라운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풍성하게 성취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고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3년 반 동안만 지속된 매우 짧은 기간이었어요. 그는 예언된 만왕의 왕이었지만, 그의 정적들 중 몇몇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16) 예수를 "바다에서 바다로, 강에서 땅 끝까지" 통치할 약속의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얼마나 기이한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 시편 72:8

더 놀라운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스승의 사랑 철학이 너무도 엄격하게 실천되어 그를 붙잡아 죽인 자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모든 위대한 통치자들은 모든 반대자들과 용감하게 싸워서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방어하려 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방비 상태였던 그의 머리 위로 질투심에 가득 찬 적들의 진노가 쏟아졌고, 그는 무덤에 누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8)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로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16)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단지 그 계획의 필수 요소, 즉 "모든 사람을위한 대속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가져오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입니다. - 디모데전서 2:6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영속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이 인류에게 가져올 평화는 죄의 저주에서 구속되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누리는 영원한 평화였습니다. 세상의 구속자이자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죽음 외에는

인류에게 이러한 영구적이고 광범위한 축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죽은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죽으셨습니다.

여전히 고통받는 인류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신성한 능력으로 부활하신 지 거의 20세기가 지났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이 땅의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가 멸망시키기 위해 죽으신 대적 죽음은 여전히 죄로 저주받은 인류를 그 지독한 손아귀에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예언서에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 이후에도 전쟁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행복을 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지만, 그가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길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셨고 이기심보다 사랑의 장점을 지적하셨지만 이기심은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스러운 말씀은 이러한 명백한 지연의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20세기 동안 인류를 해방시키려는 하느님의 계획은 꾸준히 전진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현 시대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인류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왕국의 권세를 행사할 백성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통치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그분의 사랑의 길을 걷고, 그분이 희생하신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죽도록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과 진리, 의에 대한 충실함을 증명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 요한계시록 2:10

희생과 고난을 경험한 이들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날을 위해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이들의 역할은 지구상의 모든 가족에게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20세기 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스승의 충실한 추종자들은 의와 사랑의 교두보를 계속 강화해 왔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죽음의 포로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인류의 구원에 앞서, 충실한 계급은 첫 번째 부활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의 인도에 따라 모든 인류는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종말

천년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사람들을 선택하고 훈련하기 위해 따로 마련된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 시대는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살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의 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대해야 하고 실제로 보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느님 말씀의 예언은 현 시대의 사건들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기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임을 밝힙니다.

1914년부터 시작된 일련의 재앙적인 사건들은 왕들을 왕좌에서 쓰러뜨리고, 국가 교회를 뿌리 뽑고, 전쟁과 기근, 역병으로 수많은 인류를 멸망시켰으며, 모두 성스러운 말씀에서 지적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의 일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죄와 죄의 제도에 대한 복수의 날이 임박했다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들의 고난의 최종 결과는 이기적이고 지상의 통치자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세계가 그리스도의 왕국에 의해 통치될 것임을 깨닫는 것은 안심입니다. 또한 앞으로 천 년 동안 국가들이 전체주의의 멍에나 부패한 형태의 민주주의 정부에 의해 폭압적으로 지배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당한 왕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한동안 하나님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대해 "여호와의 보좌에 앉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9:23) 그러나 이 제도는 마지막 유대 왕 시드기야의 폐위와 함께 종말을 맞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이 "그분이 오실 때까지"라고 설명합니다. (에스겔 21:27)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며, 분명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때가 올 때까지 지상의 어떤 정부에서도 하나님을 다시는 대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606년에 마지막 유대 왕이 전복된 후, 주님께서 이방 왕국들이 세계의 사회 구조를 유지하도록 허락하신 오랜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예수의 예언에서 "이방인의 시대"로 묘사됩니다. 이 예언에서 예수님은 유대 민족과 그들의 정치의 상징인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시대"가 성취될 때까지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힐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 누가복음 21:24

이방인의 시대가 2520년의 기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적 증거가 있습니다. 바빌론은 이 기간 동안 이방 세력 중 처음으로 권위를 행사한 나라였습니다. 그 시작 무렵, 주님은 느부갓네살이 인간과 같은 형상을 보는 꿈을 꾸게 하셨는데, 다니엘은 이를 바벨론에 이어 메디아, 그리스, 로마가 차례로 행사할 신성한 권위의 부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예언적 이미지에서 로마는 철제 다리로, 1914년 직전 유럽의 여러 주에서 볼 수 있었던

분열된 로마 제국은 이미지의 발가락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환상에서 돌이 발에 있는 형상을 쳐서 떨어뜨리고 가루로 만드는 것이 보입니다. 다니엘은 이 돌이 궁극적으로 온 땅을 가득 채울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방인의 시대 2520년은 1914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시기는 국가로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건은 두 사람의 지위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야 하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옛 로마 제국의 마지막 남은 유적은 파괴되어 가루가 되고 있는 반면,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1948년에 새로운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연삭기에 있지만, 현재 우리 주님의 보이지 않는 힘이 이미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고 온 인류에게 평화와 생명을 축복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탄의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확신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일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와의 장군으로서 아버지로부터 열방을 "유산"으로 받기 전에 열방을 정복하고 계신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됩니다. (시편 2:8) 우리가 보는 것은 스바냐 3:8의 첫 번째 부분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님, 즉 여호와께서 지상 사회를 정죄하기 위해 증인으로 일어나셔서 "나의 결심은 열방을 모으고 왕국을 모으고 나의 진노와 나의 분노의 모든 빛을 그들에게 부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세속사 작가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그 이후 인류를 뒤덮은 모든 문제의 시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잠시 멈췄던 적대행위의 재개로 언급합니다. 이 모든 것, 그리고 그 이상은 주님의 진노의 날,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요한계시록 16:14)에 일어날 일이며, 그 결과 문명의 전체 구조가 약화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국가에 닥칠 모든 고통의 단계는 사탄의 통치권이 전복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13:4-6의 예언을 주목하세요.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큰 백성의 소리 같고 열방의 왕국들이 모인 소리가 요란하니 만군의 주께서 전투의 군대를 소집하시도다. 그들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심지어 주님과 그의 진노의 무기를 가지고 온 땅을 파괴하기 위해옵니다. 너희는

울지어다 주[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의 멸망으로 임하리라."

사도 바울은 주의 날에 대한 설명에서 "갑작스러운 멸망"이 "해산하는 여인에게 해산통증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3) 우리가 알다시피, 고난은 고통 사이에 비교적 완화된 기간이 있는 경련으로 찾아옵니다. 이것은 1914년 이방인의 시대가 끝난 이래로 계속되어 온 사건의 패턴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련이 "평화와 안전"을 외치는 소리와 연관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이 예언 역시 매우 정확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지속적인 세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13년은 국제 평화의

해였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파괴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외침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 세계적인 투쟁이 있었고, "평화, 평화!"라는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고 고난에 지치고 죽어가는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때까지 분열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대 므깃도 전쟁터에서 그의 백성을 위해 싸우셨고, 그들의 순종이 마땅할 때 승리를 주셨지만, 그의 전략이 항상 같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상대로 승리한 경우, 주님의 전략은 이스라엘의 적들이 서로를 멸망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준비되는 큰

전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 예언은 "모든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대적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에스겔 38:21) 이 세상의 왕국들은 서로 싸우면서 이미 문명의 요새에 끔찍한 파괴를 일으켰고, 그 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더 이상의 멸망으로부터 세계를 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예언이 예언한 대로 이러한 연합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는 "너희 백성이 너희가 서로 연합하면 너희가 망하리라"라고 썼습니다. (이사야 8:9,10) 이 열방의 모임에 관한 또 다른 예언은 요엘 3:1,2입니다. 여기서 열방의 연합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모이는 것과 시간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땅을 두고 분쟁이 일어날 것이며,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간청하시고 그들의 정당한 기업을 빼앗으려는 자들에 맞서 싸우실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특정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예언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을 되찾고 그곳에서 평화와 안전을 누리며 살다가 "북쪽"에서 침략국들이 "전리품"을 가져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언학자들은 이스라엘 북쪽의 국가들이 이 마지막 침략에 관여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군사적으로 전략적인 성지를 점령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님은 자신의 개입을 걸으며 드러내십니다. 에스겔 38장 22절의 예언에 따르면, 그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역병과 피로 심판하시리니 내가 그와 그의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넘치는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비를 내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어떻게 성취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예언에는 아마겟돈의 위대한 절정,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의의 적들을 물리치고 땅의 모든 가족들의 축복을 위해 신성한 왕국이 작동하게 하는 위대한 투쟁이 묘사되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예언은 신의 개입의 결과로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민족이 기적적인 개입으로 눈을 뜨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임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은 하늘에 신성한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자녀들 사이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순수한 메시지

요한계시록 16:13,14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투에 열방을 모으는 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세 더러운 영"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한 영, 즉 성령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 특징은 사랑, 기쁨, 평화, 자비, 인내 등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더러운 영은 지상에서 명백히 부정한 세력으로서, 이 영의 선전을 통해 열방이 모이도록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서로 죽기까지 전쟁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존재입니다.

아마겟돈 이후, 주님께서 '질투'의 '불'로 온 세상을 '삼켜' 모든 죄악의 여러 제도를 멸하실 때, 주님은 '순수한 언어', 즉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하실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메시지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 스바냐 3:8,9

이것은 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동안 사랑이 인간사에 동기를 부여하는 힘으로서 이기심을 대체하게 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왕국의 통치 아래서 모든 인류는 만족과 기쁨을 찾을 것입니다. 실제로 죽은 자들도 부활하여 그 어떤 정복자도 백성에게 줄 수 없었던 생명을 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평화와 행복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고 또 주실 것입니다.

아마겟돈에서 목숨을 잃은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능력과 목적에 대한 확신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지혜로 백성들에 대한 사탄의 통치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선택한 방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투쟁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날 아침에 그들을 깨우실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겪은 위대한 투쟁의 최종 결과를 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의심할 여지없이 그들 대부분은 온 땅의 주권자로 인정받게 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 기꺼이 충성을 맹세할 것입니다. - 요한계시록 19:16; 시편 72:1-4

모든 시대에 걸쳐 죄와 죽음에 대한 경험은 힘든 것이었으며, 특히 지금은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나라들의 고통과 당혹"이

있습니다. (눅 21:25) 특히 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인 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주어질 생명의 축복에 대한 인식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모든 인류는 신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왕국의 축복이 그들에게 쏟아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니 우리가 그를 기다렸고 ...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라고 마음껏 반응할 것입니다. - 이사야 25:6-9

천 년 동안 그 왕국이 통치할 것입니다. 기쁨과 평화, 사랑과 생명의 영향력이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그 치유력이

모든 병상을 비울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에너지가 모든 무덤에 닿을 것입니다. 모든 소경의 눈이 열리고 모든 귀머거리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 이사야 35장

더 이상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거나 오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과 국가의 평화와 행복을 파괴하는 그의 이기심과 증오의 통치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왕국의 교육 프로그램의 결과로, 세상은 이기심과 증오보다 사랑과 자비의 이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확보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깊고 지속적인 기쁨의 진정한 비결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후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는 이 약속의 씨가 될 것이며, 회복된 모든 인류 종족에게 생명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 갈라디아서 3:29

아브라함 시대와 그 이전에 살았던 땅의 모든 가족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 이후 살았던 지구상의 모든 가족은 이제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기심으로 미쳐버린 세상에서 죽음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신의 개입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며, 우리는 그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사람이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다고 해서 그분의 약속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이 생명을 회복시킬 수 있고 또 회복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인자의 음성을 듣고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 요한복음 5:28,29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일까요? 아니요, 우주의 신이자 창조주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단지 고통받고 죽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류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서 강력한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창조 목적을 승리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끝날 때 모든 악의 선동자인 사탄은 멸망할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그를 계속 섬기는 사람들도 "둘째 사망"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인류에 대한 사탄의 통치권을 찬탈한 결과 수십억 명이 죽었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한 희생자 명단에 포함될 것입니다. - 요한계시록 20:10,14

그리고 사탄만이 아니라 타락한 인류를 속이고 노예로 삼았던 사탄의 기만적이고 악의적인 방법을 구성하는 모든 악이 정복당할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과 슬픔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자체가 사라질 것입니다. - 요한계시록 21:4

이 모든 것은 신의 개입으로 우리의 첫 부모가 신의 법을 어기도록 유도하고 자신과 자손에게 죽음의 형벌을 가져온 "그 옛 뱀" 사탄의 통치권이 전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인류를 죽음에서 구하기 위한

신의 개입을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아름다운 상징 중 하나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입니다. - 요한계시록 21:2

성경에서 도시는 정부를 의미하며, 거룩한 도시는 의로운 정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정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지상에 세워집니다.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매우 부정한 도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 도시는 땅의 왕들을 다스렸습니다.

이 "음녀" 도시와 연관된 상징적인 "짐승"은 부정한 통치의 또 다른 상징입니다. 짐승과 어린양, 즉 그리스도 사이에는 투쟁이 있습니다. 짐승은 부정한 도시 바빌론과 함께 멸망됩니다.

따라서 어린 양이 그의 신부와 함께 열방을 다스리는 거룩한 도시를 위한 길이 준비됩니다. 이 새로운 통치권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대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을 설명하면서 요한 계시록 기자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 요한계시록 21:3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은총을 거두셨을 때, 사람들은 죽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은총은 생명이다"라고 썼습니다. (시편 30:5)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때, 그리스도의 왕국, 거룩한 도시의 기관을

통해 그분의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날 때, 축복된 결과 중 하나는 죽음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가 그의 발아래 놓일 때까지 통치하실 것이며, 마지막으로 멸망할 원수는 죽음이라고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5:25,26) 계시자는 이와 같은 복된 생각을 강조합니다. 그는 거룩한 성이 사람들의 일을 다스리는 데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돌려주신 은혜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모든 것이 옛 것이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또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라." - 요한계시록 21:4,5

죄와 죽음에 대한 의의 최종 승리에 대한 이 확신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낼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사탄의 통치권의 마지막 남은 자들을 전복시킬 전 세계적인 아마겟돈 투쟁을 생각하며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온전하고 방해받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 마태복음 6:10